

우리나라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고흥군을 사례로 -

정원기** · 안영진***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arginal Village : The Case of Goheung-gun in Jeollanamdo*

Jeong, Won-Gi** · Young-Jin Ahn***

요약 :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형 인구가동으로 농촌은 큰 변화를 겪었다. 최근 귀농 및 귀촌으로 인하여 일부 농촌 지역의 인구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나, 농촌의 인구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는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 인구 과소화는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한계촌락’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소멸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라남도 고흥군을 사례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한계촌락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인구 과소화와 한계촌락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계촌락의 개념을 살펴보고,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전남 시군별 인구 변화와 고령화를 기초로 연구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지역 농촌 마을의 인구 실태와 고령화, 소득원 및 토지이용, 공동체 활동실태 그리고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인식 등을 고찰하였다.

주요어 :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한계촌락, 고흥

Abstract : Since 1960s the rural population of Korea has continually decreased as a result of the rapid rural-to-urban migration and this caused an economic recession as well as the accelerated aging phenomenon in the rural communities. Such problems got worse in smaller rural villages and marginal villages began to appear among the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marginal villages. A case study on the county of Goheung, Jeollanamdo, is carried out using survey and stakeholder interviews. With the survey results a series of comparative analysis are done revealing the commonalities and peculiarities between two different types of marginal villages. This study also tries to reveal the residents’s perceptions on the marginal villages and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rural rehabilitation.

Key Words : rural area, depopulation, population aging, marginal village, Goheung.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촌향도형 인구가동으로 농촌은 큰 변화를 겪어왔다. 도시의 성장과는 반대로 농촌은 인구감소와 함께 정체되거나 낙후되어 왔다(권태환, 1992). 그런데, 최근 들어 농촌에서는 귀농 및 귀촌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

고 있다(구지영 등, 2014).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농촌 전체가 인구증가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박시현 등, 2014). 귀농인 및 귀촌인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는 지역 공동체의 최소단위인 농촌 마을에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농촌 마을에서는 한계화가 진행되고

* 이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43395)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wg1111@naver.com)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yjahn@chonnam.ac.kr)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소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마스다 히로야, 2015).

이러한 농촌 마을의 한계화와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효율적인 대응 정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의 촌락(마을) 단위의 소규모 지역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며, 아울러 행정리나 촌락(마을)에 관한 데이터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일본에서는 단순히 농촌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마을의 관혼상제, 지역공동체 등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이른 상태를 뜻하는 용어인 ‘한계촌락’을 내세워, 한계촌락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계촌락에 대한 기준조차 없으며 용어마저 생소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 관련 연구들은 ‘과소화마을’, ‘과소마을’, ‘낙후마을’ 그리고 ‘공동화마을’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박경철, 2014).

이에 본 연구는 한계촌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과소화와 한계촌락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자료를 통하여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변화와 고령화를 분석하고, 과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을 선정하여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계촌락의 특성에 관한 사례 분석을 위해 연구 대상 지역의 농촌마을의 인구와 고령화, 소득원 및 토지이용, 공동체 활동실태,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이며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의 인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리¹⁾를 기본 연구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大野晃(2008)과 조영재 등(2013)의 연구를 참조하여 행정리의 인구가 50명 이하인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한계촌락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 선정에는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변화와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그리고 전라남도 시군별 한계촌락의 분포를 활용하였다. 인

구감소가 심각하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큰 곳 그리고 한계촌락이 많이 분포하는 곳인 고흥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한계촌락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전라남도 고흥군의 읍·면 중 한계촌락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점암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집단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지역 39개 마을 중 32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실재 거주인구, 토지이용 및 주요 소득원 그리고 공동체 조직 및 주민공동 활동 등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한계촌락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계촌락과 그 외 일반 마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수 50명을 기준으로 32개 마을을 과소 고령 촌락과 비과소 고령 촌락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가설검정은 유의수준 0.05에서 수행하였다. 아울러 과소 고령 촌락의 마을 2곳, 비과소 고령 촌락의 마을 2곳을 선정하여, 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마을 이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행하였다.

2. 개념정의와 연구동향

1) 한계촌락

한계촌락은 1991년 일본의 농촌사회학자 오노 아키라(大野晃, 2005; 2008)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단순히 ‘과소’(過疏)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상태를 정의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한계집락’(限界集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집락(集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리학적으로 취락(聚落)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정경희 등, 2014). 취락의 유형에는 촌락과 도시로 나누어지는데(이전, 2011).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사용 중인 용어인 ‘한계집락’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촌락’으로 변경하여 ‘한계촌락’(限界村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계촌락의 기준은 과소화와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마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설정되며, 단순히 과소화와 고령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마을의 관혼상

표 1. 한계화에 따른 촌락의 구분

촌락 구분	기 준	내 용	세대구성
존속촌락	55세 미만 인구 비율이 50% 이상	후계자가 확보되어 있고, 공동체의 기능을 차세대에 계승시키는 촌락	젊은부부세대 취학아동세대 후계자확보세대
준 한계촌락	5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0% 이상	현재는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계자 확보가 어렵고, 한계촌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촌락	부부만의 세대 준노인부부세대
한계촌락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0% 이상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	노인부부세대 독거노인세대
소멸촌락	인구, 세대수 없음	완전히 무주거지가 되어 촌락이 소멸된 상태	

자료 : 大野晃, 2008; 조영재 등, 2013

제, 지역공동체 등의 기능 유지에 한계에 이른 상태를 뜻하는 용어이다(정경희 등, 2014; 하동현, 2014).

오노아카라는 인구구성 비율에 따라 촌락을 분류하였는데(표 1),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한계촌락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50% 이상이며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한계에 달한 상태를 말한다. 한계촌락의 세대는 노인부부 세대와 독거노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인구와 세대수와 상관없이 특정 촌락에 어느 누구도 거주하지 않아 촌락이 소멸한 상태를 소멸촌락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니시다카시 등(大西隆 等, 2011)은 3가지의 공동화(空洞化)에 의해 촌락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를 한계촌락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3가지 공동화는 ‘인구공동화’, ‘토지공동화’ 그리고 ‘촌락(공동체)공동화’를 일컫는다. 오다기리토쿠미(小田切徳美, 2009)는 한계촌락은 ‘인구공동화’ 현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인구가 급감하지만 촌락의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한다. 그러나 ‘촌락공동화’ 단계 이후에는 농업활동이 쇠퇴하고 고령인구의 사망과 이주에 의한 인구감소로 촌락의 기능이 쇠퇴·정지하게 된다고 한다. 즉, 촌락의 ‘한계화’(限界化)가 시작된 것으로, 이후 주민들은 ‘이 곳에서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촌락의 인구로서는 노인층만 남게 되어 촌락이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많은 농촌지역 촌락은 ‘토지공동화’ 단계에 처해 있으며, ‘촌락공동화’ 단계에 해당하는 곳도 적지 않

게 분포한다고 한다(정경희 등, 2014).

2) 연구동향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계촌락에 관한 연구로서는 주로 과소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은 실정이다. 과소화 연구는 주로 인구 감소율, 고령자 비율, 청년층 비율 등 인구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여 조작적이고 정량적으로 과소화 지역을 판단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통계적 편이상 과소화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구 20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윤근섭, 1994; 정기환, 1999; 조준범, 2009; 이병기, 2010; 성주인 등, 2012). 하지만 조작적이며 정량적인 지표에 의거하여 과소지역을 선정하여 과소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계촌락과 관련된 연구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다만 충남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가 있다. 조영재 등(2013)은 농촌마을의 과소화, 고령화 등의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투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계마을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충청남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화’ 측면에서 조사가 행해졌다. 결론적으로 마을에 따라 한계마을로 진행되는 원인과 내용은 다양하며, 한계마을을 정량화와 표준화된 기준으로만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한계마을의 판단기준에서 일본의 기준인 ‘65세 이상 인구 50% 이상’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으며, 대신에 ‘절대인구 50명’이라는 기준이 유의미함을 밝혀냈다. 박경철(2014)은 한계마을의 특징과 시사점으로, 첫째 한계마을을 결정짓는 요인은 고령화 비율보다는 인구의 규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도로 및 교통여건은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셋째, 한계마을은 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겸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휴경지 면적 또한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다섯째, 한계마을의 경우, 마을 내 공동체 조직이 적고 그 활동도 많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계마을을 설정함에 있어 정량적 측면과 아울러 정성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이창우,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알맞는 한계촌락 관련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앞에서 언급한 조영재 등(2013)과 박경철(2014)의 연구를 모델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계촌락의 기준을 大野晃(2008)과 조영재 등(2013)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한계촌락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을 구체적인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통계지표만이 아닌 설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와 가구, 소득 및 토지이용 실태, 공동체 활동 실태,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전라남도의 인구변동과 한계촌락

1) 전라남도의 인구변화와 고령화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1990년 250만 7,439명에서 2010년 174만 1,499명으로 약 30% 감소하였으며, 인구가 증가한 곳은 목포시(2.8%)가 유일하다. 전라남도의 나머지 21개 시군의 인구는 모두 감소하였다. 전남의 시군별 인구 감소율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율이 50% 이상인 시군은 나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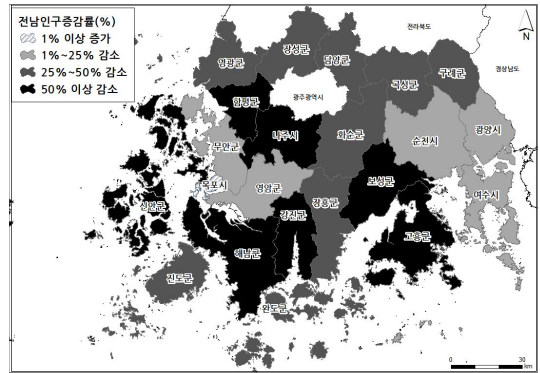


그림 1. 전남 시군별 인구 증감률

(50.4%), 해남군(50.8%), 함평군(50.9%), 강진군(51.5%), 고흥군(52.8%), 보성군(62.4%), 신안군(67.6%) 등으로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지역에 속한다(그림 1). 그리고 시와 군의 인구 감소율 차이를 보면, 시는 평균 14.5%의 감소율을 그리고 군은 평균 4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시와 군의 인구 감소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 인구 대비 20.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유엔(UN, 2010)이 정한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이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21%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 5개 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평균 14.6%로, 전국 평균인 15.6%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7개 군의 고령인구 비율은 평균 31.0%로, 전국 평균치와 전남 5개 시 평균값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남 22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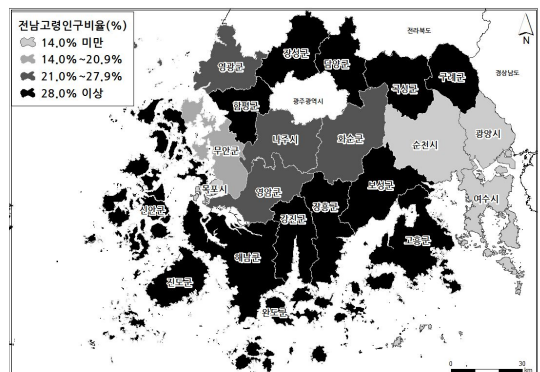


그림 2. 전남 시군별 고령인구 비율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시군은 고흥군(38.1%), 신안군(36.8%), 보성군(36.3%), 함평군(35.5%), 곡성군(34.4%) 순이며,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시군과 인구 감소율이 큰 시군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그림 2). 특히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등은 고령인구 비율과 인구 감소율 모두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어, 이들 4개 군은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가 크게 진행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이상호, 2016).

2) 전라남도의 한계촌락 분포

전라남도의 총 6,784개 행정리 중 한계촌락은 292개로, 전체 행정리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 한계촌락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고흥군으로 515개 행정리 중 56개가 한계촌락에 해당한다. 고흥군 전체 행정리의 10.9%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남도 한계촌락 비율인 4.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소 행정리 분포와 고령화 행정리 분포와도 관련된 것으로, 고흥군에는 과소 행정리와 고령화 행정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계촌락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곡성군으로 273개 행정리 중 26개로 곡성군 전체 행정리의 9.5%를, 강진군은 292개 행정리 중 27개로 강진군 전체 행정리의 9.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

이처럼 한계촌락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과소 행정리와 고령화 행정리가 많이 분포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지역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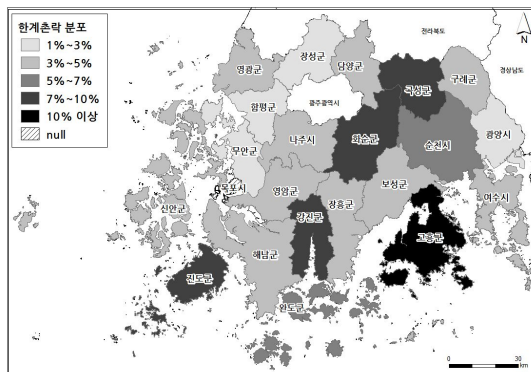


그림 3. 전남 한계촌락의 분포

또한 이러한 조건에 따라 산업단지가 밀집되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반면 한계촌락이 적게 분포하고 있는 장성군, 함평군, 무안군 등은 모두 대도시 근교지역에 속하며, 교통도 상대적으로 편리한 편이다.

4. 전라남도 고흥군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사례 분석

1) 인구 및 고령화 특성

(1) 인구·가구 및 고령인구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의 한계촌락을 대상으로 우선 인구수를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에서 적잖은 차이가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마을의 실제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고흥군 점암면 마을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평균 73명이며, 실제 거주 인구수는 평균 65명으로 주민등록상보다 8명이 적게 거주하고 있었다. 가구수는 주민등록상 가구수와 실제 가구수가 거의 동일하였다. 한계촌락의 유형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과소 고령 촌락은 평균 30명인 반면, 비과소 고령 촌락은 평균 93명으로 약 6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²⁾ 가구수는 과소 고령 촌락이 평균 23가구, 비과소 고령 촌락이 평균 57가구로 약 30가구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표 2).

고흥군 점암면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48.6%로, 고흥군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곳으로 밝혀졌다. 마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표 2. 인구·가구 및 고령인구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prob)
인구수 (명)	과소고령	30	8,445 (0.0001)
	비과소고령	93	
가구수 (호)	과소고령	23	6,777 (0.0001)
	비과소고령	57	
65세 이상 인구수(명)	과소고령	24	6,739 (0.0001)
	비과소고령	66	
65세 이상 인구비(%)	과소고령	81.25	1,925 (0.065)
	비과소고령	71.45	

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평균 35명이고 실제 거주 인구수는 평균 48명으로, 실제 거주 인구가 13명가량 많은 실정이다. 이는 총 인구의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에 있어 주민등록상 인구는 49.38%이고 실제 거주 인구는 75.74%로, 비율로 보면 약 26%의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주민등록상 인구비율과는 달리 실제 마을의 고령인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마을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계촌락 유형별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과소 고령 촌락이 81.25%, 비과소 고령 촌락이 71.45%로, 인구수와는 달리 인구 비율에서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두 유형 모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50% 이상이며, 총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서 70~80%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가구수에 비해 인구수에서 한계촌락 유형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점은 가구의 감소보다는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가구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에서는 한계촌락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촌락의 현황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수보다는 인구수를 고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만으로 촌락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입인구

한계촌락의 인구변화와 인구유입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5년간 전입인구(귀농·귀촌인 포함)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³⁾ 전입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자는 최근 5년간 총 35명이 전입해 왔고, 39개 마을 중 단 10개 마을에서만 귀농·귀촌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중 4개 마을만이 귀농·귀촌자가 5명 이상이였다. 즉, 최근 5년간의 자료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대부분의 마을에서 귀농·귀촌자의 유입이 전혀 없었으며 귀농·귀촌자가 있는 마을 역시 귀농·귀촌자의 유입이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의 전입인구 실태를 조

표 3. 최근 5년간 전입인구 (단위: %)

구 분	전체	과소 고령	비과소 고령
전체	100.0	100.0	100.0
5명 미만	87.5	92.9	83.3
10명 미만	12.5	7.1	16.7

$\chi^2=0.653, df=1, prob=0.613$

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입인구가 5명 미만의 항목에 87.5%가 응답하였다(표 3). 대다수 촌락에서는 인구 유입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계촌락 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 없이 유사하게 인구유입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입인구 10명 미만의 항목에 응답한 마을은 총 4곳으로, 점암면 귀농·귀촌자 자료에서 말하는 귀농·귀촌자가 5명 이상인 마을의 수와 일치한다. 점암면사무소의 자료처럼, 실제 마을의 귀농·귀촌 및 인구유입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입인구가 적은 이유에 대해 D마을 이장 이00씨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 소득원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하였다. 이 지역은 주로 쌀과 마늘 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작물은 기존 농가들에 의해 활발히 경작되고 있다. 그리고 농지를 거래하는 경우도 드물어 귀농인들이 농지를 구입할 기회도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층조사를 통해 마을의 전입자 실태를 살펴보면, 전입자의 대부분은 해당 마을에 연고가 있어 귀향하였으며, 거주지는 주로 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이었다. 농지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고향은 대도시와 거리가 멀어 운송비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교 농촌지역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생활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소득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인의 전입이 드물며, 그나마 전입해오는 사람들도 이 지역에 연고가 있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3) 인구변화 형태와 인구감소 요인

한계촌락의 인구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마을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에 71.9%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계촌락 유형별로 보면, 두 유형 모두

‘서서히 감소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두드러지는 점은 비과소 고령 총락은 ‘현재의 인구규모 유지’와 ‘서서히 증가’ 항목에서 27.8%를, 과소 고령 총락은 ‘급속히 감소’ 항목에서 21.4%를 보여주고 있다. 즉, 두 유형 모두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과소 고령 유형의 총락은 인구 감소가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다음으로 인구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한 26개 마을의 경우, 인구감소 요인으로서 ‘고령자 사망증가’가 4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출생인구 감소’가 3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 모두 고령자 사망 증가와 출생 인구 감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4). 즉, 한계총락의 인구감소 요인으로서 사회적 감소보다는 자연적 감소가 더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되는 있는 것을

표 4. 인구변화 형태 및 인구감소 요인

(단위: %, 마을수)

구 분	전체	과소 고령	비과소 고령	
전체	100.0 (32)	100.0 (14)	100.0 (18)	
인구변화형태	급속히 감소	9.4	21.4	0.0
	서서히 감소	71.9	71.4	72.2
	현재 규모 유지	9.4	7.1	11.1
	서서히 증가	9.4	0.0	16.7
전체	100.0 (26)	100.0 (13)	100.0 (13)	
인구감소요인	전입인구 감소	7.7	0.0	15.4
	출생인구 감소	38.5	46.2	30.8
	고령자 사망증가	42.3	46.2	38.5
	소득및일자리감소	11.5	7.7	15.4

인구변화: $\chi^2=6.323$, $df=3$, $prob=0.097$

감소요인: $\chi^2=2.824$, $df=3$, $prob=0.420$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층조사에서 주민들은 소득과 일자리 부족, 열악한 복지과 의료서비스, 불편한 교통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오래전부터 인구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존 인구가 전출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하였다.

2) 주요 소득원과 농지이용 특성

(1) 주요 소득원

한계총락에 해당하는 마을의 소득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순위, 2순위, 3순위의 소득원을 조사하였다. 1순위 소득원은 논농사로 90.6%를 차지하였다. 2순위 소득원은 밭농사로 75.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흥군 점암면의 주요 생산 작물이 쌀과 마늘인 것과 관련이 있다. 1순위와 2순위의 소득원 모두 한계총락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동일하였다. 3순위 소득원은 1순위와 2순위에 없었던 비직업 소득(자녀의 송금, 연금, 저축 등)이 3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축산(28.1%), 과

표 5. 마을 주요 소득원

(단위: %)

구 분	전체	과소 고령	비과소 고령	
전체	100.0	100.0	100.0	
1 순위	논농사	90.6	92.9	88.9
	밭농사	9.4	7.1	11.1
전체	100.0	100.0	100.0	
2 순위	논농사	9.4	7.1	11.1
	밭농사	75.0	85.7	66.7
	과수/원예	12.5	7.1	16.7
	축산	3.1	0.0	5.6
전체	100.0	100.0	100.0	
3 순위	밭농사	9.4	0.0	16.7
	과수/원예	25.0	14.3	33.3
	축산	28.1	21.4	33.3
	특용작물	3.1	0.0	5.6
	비직업 소득	34.4	64.3	11.1

1순위: $\chi^2=0.146$, $df=1$, $prob=0.596$

2순위: $\chi^2 df=3$, $prob=0.601$

3순위: $\chi^2 df=4$, $prob=0.025$

수/월에(25.0%)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한계촌락 유형별로 살펴보면, 3순위 소득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소 고령 촌락에서는 비직업 소득이 64.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반면, 비과소 고령 촌락에서는 비직업 소득에 대해서는 11.1%만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비과소 고령 촌락에서는 과수/월에(33.3%), 축산(33.3%), 밭농사(16.7%), 특용작물(5.6%)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비과소 고령 촌락은 한층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소 고령 촌락의 3순위 소득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을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마을의 한계화를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2) 휴경지

농촌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고 고령인구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지를 활용하는 상황도 적잖게 변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계촌락의 휴경지 비율과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의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대상 마을들의 휴경지 비율을 살펴보면, 휴경지의 비율이 20% 미만인 항목에 78.1%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양상은 한계촌락 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동일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을에서 논(畓)의 휴경지 비율은 20% 미만임을 알 수 있었다(표 6).

밭의 휴경지 비율을 살펴보면, 휴경지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5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휴경지 비율이 40~59%에 이르는 경우가 18.8%로, 휴경지 비율이 20%~39%인 경우가 15.6%로 나타났다. 따라서 밭은 논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은 과소 고령 촌락과 비과소 고령 촌락 모두 20% 미만인 경우에 응답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밭은 비과소 고령 촌락에만 20% 미만인 경우에 응답이 몰려 있다. 과소 고령 촌락에서는 모든 항목에 응답이 분산되어 있다(표 6). 이러한 현상은 과소 고령 촌락에서부터 지형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에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형의 대부분이

표 6. 휴경지 비율 (단위: %)

구 분	전체	과소 고령	비과소 고령	
전체	100.0	100.0	100.0	
논	40% 이상	6.3	7.1	5.6
	20%~39%	15.6	21.4	11.1
	20% 미만	78.1	71.4	83.3
전체	100.0	100.0	100.0	
밭	80% 이상	3.1	7.1	0.0
	60%~79%	9.4	14.3	5.6
	40%~59%	18.8	21.4	16.7
	20%~39%	15.6	28.6	5.6
	20% 미만	53.1	28.6	72.2

논: $\chi^2=0.711$, $df=2$, $prob=0.701$

밭: $\chi^2=7.515$, $df=4$, $prob=0.111$

구릉지인 점암면의 특성상 향후 휴경지 비율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지 임대

마을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한계촌락의 농지 중 논(畓)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휴경지 비중이 20% 미만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층조사에서는 노인들이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대신에 농지를 임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농지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농지 임대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한계촌락의 농지 임대 실태를 살펴보면,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가 60% 이상인 항목에 50.1%가 응답하였다. 즉,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의 비율이 60% 이상인 마을이 전체 조사 마을 중 절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계촌락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소 고령 촌락에서는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가 80% 이상인 경우에 35.7%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가 60% 이상인 경우에는 28.6%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농지 임대 주민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14.3%만이 응답하였다(표 7).

비과소 고령 촌락에서는 여러 항목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비과소 고령 촌락에서는 40% 미만인 경우의 항목에 절반 이상이 응답하여 과소 고령

표 7.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의 비율

(단위: %)

구 분	전체	과소 고령	비과소 고령
전체	100.0	100.0	100.0
80% 이상	18.8	35.7	5.6
60%~79%	31.3	28.6	33.3
40%~59%	9.4	14.3	5.6
20%~39%	15.6	7.1	22.2
20% 미만	25.0	14.3	33.3

$\chi^2=6.806$, $df=4$, $prob=0.146$

촌락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과소 고령 촌락 중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마을은 과소 고령 촌락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의 비율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공동체 특성

(1) 공동체 조직

인구감소와 고령화, 인구유출과 도시화, 농업쇠퇴 등 이러한 추세들은 촌락 공동체의 구조와 결속력에 영향을 미쳐 촌락이 변화하고 있다(Woods, 2005).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사례지역 역시 촌락 공동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계촌락 내에 어떠한 공동체 조직이 존재하며, 주민 공동 활동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⁴⁾.

마을의 공동체 조직은 평균 2.5개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소 고령 촌락은 2.29개, 비과소 고령 촌락은 2.67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표 8). 마을 내에 대표적인 공동체 조직으로서는 노인회와 부녀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조직체는 거의 모든 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다른 공동체 조직은 청년회와 마을추진위원회 정도가 구성되어 있었다. 청년회의 경우, 노인회와 부녀회에 비해 그 수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회가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농촌의 인구유출에 따른 청년층 인구 감소와 마을

표 8. 공동체 조직

(단위: 개, %)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prob)
마을 공동체	과소 고령	2.29	0.914	1.519 (0.139)
	비과소 고령	2.67	0.485	
구성	노인회	과소 고령	0.86	1.472 (0.165)
		비과소 고령	1.00	
	부녀회	과소 고령	0.86	1.472 (0.165)
		비과소 고령	1.00	
비율	청년회	과소 고령	0.43	0.087 (0.931)
		비과소 고령	0.44	
	추진위원회	과소 고령	0.14	0.555 (0.583)
		비과소 고령	0.22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회는 일반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모여 조직하고 활동하는 공동체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청년회가 존재하고 있는 마을 중 청년회에 소속된 주민들의 주요 연령층을 조사한 결과 50대가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도 28.6%를 차지하였다. 즉, 청년회에 소속된 구성원은 50~6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마을의 고령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 주민 공동 활동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조사하였는데, 이른바 이러한 '주민 공동 활동'은 각 마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주민 공동 활동으로서는 농작물 작업, 농기계 공동사용, 마을 토지 및 시설관리, 마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마을잔치 및 애경사, 도농교류 및 정부 지원 사업 등 크게 6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였다⁵⁾. 주민공동 활동을 살펴보면, 평균 1.5개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계촌락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소 고령 촌락은 평균 1.29개 그리고 비과소 고령 촌락은 평균 1.67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활동별로 살펴보면, 마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활동과 마을잔치 및 애경사의 경우, 과소 고령 촌락이 평균 0.50 그리고 비과소 고령 촌락이 평균 0.67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

타났다.

종합해 보면, 주민 자치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하는 주민 공동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하는 활동은 마을 청소와 애경사 등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마을 내 공동체 조직인 노인회와 부녀회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 조직과 연계된 활동을 제외하면, 한계촌락의 주민 공동 활동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으며,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공동체 활동의 변화

촌락 공동체의 조직과 공동 활동들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인구유출과 농업의 쇠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동체 활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촌락 공동체 활동이 과거에 비해 침체되고 있음에 65.6%의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이 과거에 비해 변화가 없다는 경우에 21.9%의 응답을, 약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경우에 12.5%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어 촌락 공동체의 활동이 크게 침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한계촌락 유형별로 보면, 두 유형 모두 공동체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는 경우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이 약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경우에 비과소 고령 촌락이 좀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촌락의 공동체 활동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과거에 비해 침체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비과소 고령 촌락의 일부 마을에서는 과소 고령 촌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층조사에 의하

면, 대부분의 마을에 존재하는 공동체 조직인 노인회와 부녀회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명목상으로는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소 고령 촌락의 마을에서는 명목상으로는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년회의 경우에는 두 유형의 한계촌락 모두에서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특히 과소 고령 마을에서는 조만간 청년회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촌락의 발전과 소멸에 대한 주민 인식

(1) 촌락의 발전전망

한계촌락의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81.3%에 이르는 대다수의 마을에서는 현재보다 쇠퇴하고 침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항목에는 18.8%만이 응답하였으며, 현재보다 발전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한계촌락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소 고령 촌락에서는 대다수(92.9%)가 현재보다 쇠퇴하고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미래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비과소 고령 촌락에서는 현재보다 쇠퇴하고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에 72.2%로 과소 고령 촌락의 수치보다 낮았지만, 마을의 미래를 역시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과소 고령 촌락에서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27.8%의 응답을 기록하여, 과소 고령 촌락(7.1%)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마을의 상황이 현재보다 미래에 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비과소 고령 촌락의 일부 마을에서 향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즉, 일부 비과소 고령 촌락의 마을을 제외한 대다수의 농촌 마을들은 현재보다 쇠퇴하고 침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는 향후 마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마을의 활력 역시 크게 떨어질 것이다.

(2) 촌락의 소멸 가능성

대다수의 조사 마을에서 마을의 발전 전망을 상

표 9. 촌락 공동체 활동 변화 (단위: %)

구 분	전체	과소 고령	비과소 고령
전체	100.0	100.0	100.0
매우 침체	40.6	50.0	33.3
약간 침체	25.0	14.3	33.3
변화 없음	21.9	28.6	16.7
약간 활성화	12.5	7.1	16.7

$\chi^2=2.763, df=3, prob=0.430$

당히 어렵게 전망하고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향후 마을의 소멸 가능성에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소멸 가능성이 없다’는 경우가 40.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31.3%는 향후 30~50년 내에 마을의 소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반면 ‘10년 이내 소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경우에는 12.5%만이 응답하였다. 즉, 촌락의 발전 전망에서는 미래를 어렵게 전망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촌락 소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거나 30~50년 이후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계촌락 유형별로 고찰하면 두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촌락 소멸은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고 있으나, 비과소 고령 촌락에서 좀 더 강하게 촌락이 소멸할 가능성이 없거나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심층조사에서 주민 대다수는 마을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아직 소멸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하면서 마을 소멸이란 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주민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 마을에 50대와 60대가 살고 있고, 자식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마을이 없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마을에서 고령화가 심각하고 젊은 층의 인구가 거의 없는 상황과는 달리, 촌락 주민들은 마을 소멸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마을의 젊은 층인 50~60대가 30년 이후에 고령으로 사망하기 시작한다면, 과소 고령 촌락의 마을부터 마을의 소멸이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촌락 소멸의 대응 방안과 정책적 수요

촌락의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는 응답자 중 37.5%가 마을이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25.0%는 마을의 합병 또는 이전과 같은 촌락 재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을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9.4%만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촌락 소멸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소멸되는 촌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가

표 10. 촌락 소멸에 대한 대응정책

(단위: %)

구 분	전체	과소 고령	비과소 고령
전 체	100.0	100.0	100.0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긴다	18.8	28.6	11.1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37.5	57.1	22.2
주민들 힘을 모아 마을 자체적인 노력 필요	12.5	7.1	16.7
정부와 주민 힘을 합쳐 다양한 노력 필요	31.3	7.1	50.0

$\chi^2=9.041, df=3, prob=0.029$

필요하다는 입장이 37.5%를, 정부와 주민들의 힘을 합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31.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촌락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0).

먼저 과소 고령 촌락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57.1%를 기록한 반면, 비과소 고령 촌락은 정부와 주민이 함께 힘을 합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50.0%를 기록하였다. 즉, 두 유형 모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과소 고령 촌락은 정부나 지자체의 힘에 더 의지하여 촌락 소멸에 대해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향후 소멸되는 촌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소 고령 촌락은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 주민들의 자치활동의 역력이 부족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에 좀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 본 연구에서는 8가지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노인복지, 보건의료, 그리고 마을기반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한계 촌락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표 11. 정책 수요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prob)
보건의료	과소 고령	0.57	0.514	0.390 (0.699)
	비과소 고령	0.50	0.514	
노인복지	과소 고령	0.79	0.426	1.064 (0.296)
	비과소 고령	0.61	0.502	
보육/교육	과소 고령	0.07	0.267	1.000 (0.336)
	비과소 고령	0.00	0.000	
교통편의	과소 고령	0.29	0.469	1.191 (0.246)
	비과소 고령	0.11	0.323	
마을기반 시설	과소 고령	0.36	0.497	2.148 (0.040)
	비과소 고령	0.72	0.461	
주거환경	과소 고령	0.14	0.363	1.270 (0.214)
	비과소 고령	0.33	0.485	
문화여가	과소 고령	0.00	0.000	1.000 (0.331)
	비과소 고령	0.06	0.236	
치안/안전	과소 고령	0.07	0.267	0.178 (0.860)
	비과소 고령	0.06	0.236	

지한 노인복지와 보건의료는 과소 고령 촌락에서 좀 더 비중이 높지만, 두 유형 모두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반면 마을기반시설에서는 두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기반시설의 경우 과소 고령이 평균 0.36 그리고 비과소 고령이 평균 0.72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표 11). 이는 과소 고령 촌락은 다른 정책보다 노인 위주의 복지정책이나 보건의료 관련 정책, 그리고 교통편의 등 소프트웨어적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비과소 고령 촌락은 소프트웨어적 정책을 선호함과 동시에 하드웨어적인 정책도 함께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 현상에 따라 마을 주민의 대다수인 고령자들의 생활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과소 고령 촌락과 비과소 고령 촌락 상관 없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지원과 투입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도

시와 달리 활력을 잃었으며, 인구뿐만 아니라 토지나 소득, 공동체 등 여러 사항에서 침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리 또는 마을 단위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규모 지역의 심층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낙후문제에 대한 뚜렷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하고 한계촌락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고흥군을 사례로 한계촌락의 특성과 유형별 차이를 파악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의 경우 한계촌락의 통계치 인구보다 실제 거주 인구가 적었으며, 고령인구는 오히려 통계치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고령인구의 비중은 마을 단위가 시·군과 읍·면 단위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모든 마을에서 고령화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인구규모에 따라 그 모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득원의 경우,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처럼 주로 논과 밭 작물을 생산하고 있고 고소득 작물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주민 고령화로 인해 농업활동의 경우 휴경지보다 농지 임대 비중이 높았다. 과소 고령 촌락의 대부분은 농지를 임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비과소 고령 촌락에서도 그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셋째, 한계촌락에서는 공동체 조직과 활동 역시 크게 침체되고 있었다. 공동체 조직은 노인회, 부녀회가 주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주민수의 감소로 실제 활동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 공동 활동 역시 공동체 조직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마을이 현재보다 쇠퇴하고 침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반면 촌락 소멸과 관련하여 소멸 가능성이 없거나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촌락 소멸의 대응방법으로서는 정부의 지원 및 투자와 함께 주민들의 협력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노인복지, 보건의료, 마을기반시설이며, 과소 고령 촌락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그리고 비과소 고령 촌락은 소프트웨

어적인 정책과 더불어 하드웨어적인 정책을 동시에 선호하였다.

이처럼 과소 고령 촌락과 비과소 고령 촌락 대부분이 상당히 고령화된 상태이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와 가구, 소득 및 토지, 그리고 공동체 조직 부분에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과소 고령 촌락은 한계촌락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한계촌락으로 구분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결과 두 유형 간에 다수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수의 비과소 고령 촌락에서도 과소 고령 촌락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촌락의 특징은 인구규모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인구 100명 이상의 마을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70~80대 고령층이 사망하기 시작한다면, 과소 고령 촌락은 한계화를 넘어 소멸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리와 촌락(마을)의 실태와 변화에 대한 기초 연구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속적인 기초연구의 진행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 마을의 한계와 소멸에 대한 기준 확립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각 마을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촌락의 유지 및 관리, 재생, 소멸 등의 방안을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촌락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을 단위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자료 수집상의 제한으로 행정리 단위로 살펴본 점, 그리고 한계촌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고흥군 전체 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향후 타 지역의 한계촌락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

- 1) 행정리는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법정리에 1개 또는 여러 개로 설치한 행정구역이다. 보통 20~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통적인 촌(村) 또는 부락(部落)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다.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한다.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지방자치관계법령집2015).

- 2) 이 연구에서는 실거주 인구 50명 미만이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50% 이상의 유형을 과소 고령 촌락으로, 실거주 인구 50명 이상이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50% 이상의 유형을 비과소 고령 촌락으로 분류하였으며, 고흥군 점암면의 경우 과소 고령 촌락은 14개 그리고 비과소 고령 촌락은 18개에 달한다.
- 3) 2011년~2015년 고흥군 점암면의 전입자, 전출자, 귀농·귀촌자 자료(점암면사무소). 점암면 주민등록상 전입자는 1,075명이고 전출자는 1,122명이었다.
- 4) 공동체 조직과 주민 공동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조영재 등(2013), 성주인 등(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농촌 마을의 공동체조직과 주민 공동 활동 항목을 선정하였다. 농촌 마을의 공동체 조직으로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대동계, 추진위원회 등이 있었다. 주민 공동 활동으로는 농작물 작업, 농기계 공동 사용, 마을 토지 및 공동시설 관리, 마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마을잔치 및 애경사, 도농교류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이 있었다.
- 5) 주민 공동 활동은 성주인 등(2015), 조영재 등(2013)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6가지로 구분하였다.

문헌

- 구지영·안영진, 2014, 농촌의 인구유입과 지역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8(4), 479-492.
- 권태환, 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학회지, 2, 39-56.
-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김정환(역), 2015,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 박경철, 2014, '한계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충청남도 금산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학회지, 24(2), 7-59.
- 박시현·최용욱, 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박대식·정은미·민경찬, 2015,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채종현, 2012,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21권.
- 윤근섭·송정기, 1994, 과소지역의 형성과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 1980~1990년의 전북지역의 사례, 한국농촌사회학회, 4, 21-48.
- 이진, 2011, 촌락 지리학: 인간의 정주공간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 푸른길.
- 이병기, 2010, 농촌 과소화 실태와 전망, 농촌지도

- 와 개발, 17(4), 773-797.
-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이창우, 2014, 농어촌 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 농촌계획, 20(2), 91-102.
- 정경희·이재훈·김병량, 2014, 일본 '한계취락(限界聚落)'의 인구감소 대책방안 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3), 35-43.
- 정기환·문순철·민상기, 1999,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영재·유학열·윤정미·이관률·박경철·엄성준,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 조준범, 2009,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과소화(過疎化)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 장흥군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3호, 163-182.
- 하동현, 2014, 일본의 지역활성화 정책과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 지방행정, 63, 20-23.
- 大野晃, 2008, 限界集落と地域再生, 徳島新聞社.
- 大野晃, 2005, 山村環境社会学序説: 現代山村の限界集落化と流域共同管理, 農山漁村文化協会.
- 大西隆·小田切徳美·中村良平·安島博幸·藤山浩, 2011, これで納得! 集落再生: '限界集落'のゆくえ, 株式会社ぎょうせい.
- 小田切徳美, 2009, 農山村再生: '限界集落'問題を超えて, 岩波書店.
- Woods, M., 2005, *Rural Geography: Processes, Responses and Experiences in Rural Restructuring*, SAGE Publications.
- UN, 2010, *The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United Nations.
- 교신 : 안영진,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이메일: yjahn@chonnam.ac.kr, 전화: 062-530-2680)
- Correspondence : Young-Jin Ahn, Yongbongro 77, Bukgu, Gwangju, 500-757, Korea (e-mail: yjahn@chonnam.ac.kr, phone: +82-62-530-2680)

(접수: 2016.08.17, 수정: 2016.08.21, 채택: 2016.08.25)